

전남 학생들이 오월영령 추모 행렬... “희생 잊지 않을 것”

화순·담양·완도·나주·장성 등지에서 국립5·18민주묘지 참배·묘비닦기 교사 “불의에 저항하는 어른 되길” 5월1~12일 평균 1050여 명 참배

5·18민주화운동 44주기 주년을 맞아 오월영령을 추모하는 열기가 고조되고 있다.

13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는 민주열사들을 기리려는 완도·화순 등 전남 5개 지역 학교 학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이날 오전 9시20분께 ‘임을 위한 행진곡’이 민주묘지에 울려 퍼지는 가운데 화순 능주중학교 3학년 학생 54명이 첫 참배객으로 추모탑 앞에 늘어서 묵념했다.

박재연 양은 “‘택시운전사’ 영화를 본 이후부터 5·18민주화운동에 관심을 가졌다. 민주열사 중 어린열사가 많더라”며 “젊은 나이에 민주주의를 위해 앞장섰던 그들의 용기가 대단했다고 느낀다”고 말했다.

인솔교사 이우형(32)씨는 “세월호 참사 때 팽목항에 방문했는데, 글과 사진으로 보는 것과 현장을 찾아 느끼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알았다”며 “수많은 희생으로 민주주의를 지켰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불의에 맞서는 어른으로 자라나기를 바란다”고 했다.

화순제일중학교에서는 3학년 6개 학급, 140여 명의 학생이 민주묘지를 찾아



화순 도곡중학교 학생들이 13일 제44주년 5·18민주화운동을 맞아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한 후 묘비를 닦으며 오월정신을 기리고 있다. 나건호 기자

참배했다. 학생들은 오월영령의 희생을 잊지 않겠다고 낮은 소리로 되뇌며 고개를 숙였다.

김성우군은 “조국의 발전과 민주화를 위한 민주열사들의 희생에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이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5·18민주화운동을 잊지 않고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지원군은 “민주묘지에 온 건 처음이다. 실제로 와 보니 그날의 현상이 머릿속

에 그려져 마음이 아팠다”며 “학교에서 5·18민주화운동 관련 문학작품을 읽거나 영화를 감상하는 등 다양한 교육을 받았다. 앞으로도 오월영령들에 대한 관심이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화순 도곡중학교 전교생 54명은 준비한 수건 등으로 정성스럽게 비석을 닦고 묵념을 올리며 오월 영령들을 위로했다.

학생회장 이은유(15)군은 “44년 전 5월 당시 대학생이었던 아버지가 서울에서

시위에 참여하다 구금되기도 했다”며 “5·18민주화운동은 지역 내에서 일어난 사건이라 관심이 많다. 묘역에 잠들어 있는 영령들이 존경스럽다”고 말했다.

대안학교 담양잇다자유발도르프학교 학생 15명은 참배에 앞서 김지하 시인의 ‘타는 목마름으로’를 낭독하고 민주가요 ‘임을 위한 행진곡’을 합창했다.

역사를 가르치는 임준제(49)씨는 “작년부터 학생들과 민주묘지를 찾았다. 매

년 5월마다 프로그램을 진행하려 한다”며 “시를 낭독하고 노래를 부르는 추모식을 학생들이 준비했다. 교실에서 수업을 듣는 것과 현장을 찾는 것은 다르다. 수업 시간에 배울 수 없는 것들을 느끼길 바란다”고 말했다.

완도교육지원청에서는 관내에 위치한 6개 학교, 18명의 학생이 대표로 민주묘지를 찾았고 나주에서는 4개 학교 학생회장으로 구성된 학생연합회가 민주묘지에 방문했다.

이태희(26) 완도여중 인솔교사는 “아이들이 5·18민주화운동을 바로 보고 가슴으로 느낄 수 있는 시간”이라며 “역사교사로서 5·18민주화운동 당시 군부에 저항했던 시민들의 모습을 중심으로 교육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성에서도 11개 학교에서 18명의 학생이 대표로 민주묘지를 참배하며 오월정신 계승을 다짐했다.

정인서(18) 장성여자중학교 학생회장은 “이번 참배를 통해 우리 고장 출신의 열사에 대해 알게 됐다”며 “그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해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겠다”고 말했다.

국립5·18민주묘지 관계자는 “5월 1일부터 12일까지 일 평균 1050여 명이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았다”며 “매년 5·18민주화운동 주간에 들어서는 방문객이 2000~3000명 규모로 늘어나는 추세를 보인다”고 말했다. 나다운·윤준명 수습기자

신봉수 광주고검장·이종혁 광주지검장 임명

홍승욱 광주고검장·박종근 광주지검장 사의

신봉수 수원지검장(사법연수원 29기)과 이종혁 서울고검 차장검사(사법연수원 30기)가 각각 광주고검장과 광주지검장에 임명되면서 홍승욱 광주고검장(사법연수원 28기)과 박종근 광주지검장(56·사법연수원 28기)이 13일 사의를 표명했다.

51대 광주고등검찰청장인 홍승욱 광주고검장은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서 사의를 표명했다.

홍 고검장은 “1997년 사법연수생 시절, 밥을 사주겠다는 선배에 이끌려 새로 생긴 시민단체에 자원봉사 일을 한 적이 있다. 저는 얇은 법률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사회에 미약하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조금 뿌듯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후 검사가 돼 사건관계인이나 동료의 말을 좀 더 귀 기울여 듣고 배려하며, 공감하고 소통했어야 하는데 저는 많이 부족했다”고 소회했다.

홍 고검장은 “진실의 가장 큰 친구는 시간이고 가장 큰 적은 편견”이라며 “내 편, 네 편을 나누는 배타적인 선악이분법을 극복하고 양쪽의 비난을 감수하면서도 오로지 법과 원칙, 증거와 법리에 따라 책임을 수행하는 것만이 국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검사로 임관한 이후 매해 빠짐없이 ‘우리 검찰은 그 어느 때보다도 위기’라는 말을 들었다”며 “모든 일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면 긍정적인 사람이, 부정적으로 반응하면 부정적인 사람이 된다”고 적



신봉수 광주고검장

었다.

박종근 광주지검장도 이날 “오늘 사직서를 제출했다. 25년 조금 넘는 기간 검사로서 행복했다. 검찰과 구성원들에 대한 애정 만큼은 진심이었다”고 밝혔다.

박 지검장은 “성경에 환난 중에 인내하

면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는 구절이 있다”며 “어렵고 힘들더라도 인내하고, 인내하는 가운데 소망을 품고 연단하는 검찰이 됐으면 한다”고 적었다.

그는 “검사장으로서 후배들에게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아무런 성과 없이 무거운 짐만 남겨두고 가는 발걸음이 무겁기는 합니다만, 개인적으로는 기쁜 마음으로 떠난다”고 전했다.

한편 신봉수 고검장은 수원지검 평택지청장과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수원지검장 등을 지냈다. 이종혁 지검장은 법부연수원 교수, 인천지검 부천지청 차장검사,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서울고검 차장검사 등을 지냈다. 송민섭 기자

그린알로에

그린궁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